



새누리 공원 유세... 제18대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7일 새누리당 광주시당은 광주 남구 광주공원 광장에서 황우여 대표와 이정현 공보단장, 이자스민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유세를 열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민주 선대위 출범... 민주통합당 광주시당은 27일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에서 박지원 원내대표와 정병완 광주시당위원장, 임내현·박해자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 광주선대위 출범식'을 가졌다. /김진수기자 jeans@

### 김성주·황우여·이준석 VS 손학규·박지원·문성근

‘유세 도우미’ 대결 후끈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박·문 두 후보를 돕는 ‘유세 도우미’들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양당 캠프는 두 후보의 정책을 알리는 것은 물론 부족한 이미지는 보완하고 후보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는 더 높일 수 있는 인사들로 ‘유세 도우미’를 구성, 득표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성주 공동선대위원장이 27일 서울역을 시작으로 연세대에서 학생들과 점심을 함께 한 뒤 젊은층이 많이 모이는 신촌과 대학로에서 ‘게릴라 토크콘서트’를 가졌다.

황우여 공동위원장도 수 개월전부터 공을 들여온 호남지역에서 ‘유세 도우미’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당내 차세대 주자 및 정치신인으로 구성된 ‘행복드림유세단’도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유세 도우미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유세 도우미로 구성된 ‘행복드림유세단’도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유세 도우미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우선 개혁소장으로 널리 알려진 원희룡 전 의원과 남경필 의원, 경남지사를 지

낸 김대호(재선) 의원이 참여하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이준석(27) 전 비대위원과 지난 총선에서 27세의 정치신인으로 부산 사상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도전했던 손수조 미래세대 위원장 등도 젊은층과의 ‘소통 유세’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행복드림유세단은 박 후보와 별도로 수도권과 전국을 돌며 젊은 층과의 거리 좁히기에 나선다.

민중당에서는 문재인 후보 ‘담쟁이 유세단’이 후보 중심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당내 대선후보 경선 당시 경쟁자들과 당 지도부가 주축이 된 ‘소통 유세단’이 유세 도우미로 나섰다.

소통 유세단에는 손학규·정동영·정세균 상임고문을 비롯해 김두관 전 경남지사 등이 포함됐다. 손 고문은 주로 수도권과 호남, 김 전 지사는 부산·경남, 정동영·정세균 고문은 호남을 근거지로 지인활동을 펼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문 후보의 지역 유세에는 해당 지역에서 영향력을 가진 당내 인사를 비롯해 지역위원장과 지역 의원들이 따라붙는다. 27일 호남에서는 박지원 원내대표, 부산과 창원 지역 유세에는 김부겸 전 최고위원과 지난 총선에서 부산 북 강서를 지역구로 출마했던 문성근 전 최고위원이 각각 지원 사격에 나섰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 朴 충청·文 PK 유세... 첫날부터 ‘난타전’

박 “노무현 정권 핵심... 이념투쟁으로 날밤 새”

문 “유신독재 잔재세력이 민주주의 할 수 있나”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27일 18대 대통령을 향한 운명의 결전에 본격 뛰어 들었다.

이번 대선에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를 포함해 모두 7명이 출마했지만 박, 문 두 후보가 양강체제를 형성하면서 오차범위 내 초박빙의 접전양상을 보이고 있어 역대 대선 최소 표차의 피 물리는 접전이 예상된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에서 출발해

충청과 전북을 떠나며 10개 일정을 소화하는 강행군을 펼치고, 문 후보는 부산과 창원에서 유세를 한 뒤 서울로 올라와 세종문화회관에서 집중 유세를 하는 등 전국을 누비는 유세 행보를 하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을 보냈다.

특히 박 후보와 문 후보는 이날 충청과 PK(부산·경남)에서 첫 유세를 했다. 최대 표밭인 수도권을 제외하고

는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를 권 총청과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PK가 전제적인 판세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 후보와 문 후보가 그동안 각각 충청과 PK에 각별한 공을 들였음에도 양자구도 확정 후 해당 지역에서 지지율이 오히려 약간 빠지는 흐름이 나타나 두 후보 모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두 후보는 첫날 유세부터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며 난타전을 벌였다. 박 후보는 대전역 유세에서 “지금 야당 후보는 스스로 폐족이라 불렀던

실제한 정권의 최고 핵심 실세였다”면서 “정권을 잡자마자 국가보안법 폐기하겠다, 사화법을 개정하겠다며 이념투쟁으로 날밤 지새운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 시절 대학등록금 및 부동산 가격 폭등, 양극화 심화 등을 일일이 거론한 뒤 “입으로는 서민정권이라 주장했지만 지난 정권에서 서민을 위협했던 정책 중 하나라도 기억나는 게 있느냐”며 “한번이라도 자신을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한 적이 있고 남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부산 유세에서 “이번 대

선이야말로 과거 세력과 미래세력의 한판 대결”이라면서 “5·16 군사 쿠데타, 유신독재 세력의 잔재를 대표하는 박근혜 후보가 독재를 찬양하고 미화한 역사인식으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느냐”고 반격했다. 그는 이어 “박 후보는 단 한 번도 서민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다. 자신의 노동으로 돈 벌 적도 없고 취직 걱정, 집값 걱정, 빚 걱정, 은행 대출 이자, 물가 걱정을 해봐 왔는가”라고 비판한 뒤 “교만하고 박선적인 불통의 리더십으로 새정치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 황우여 “광주가 미래 열 것”... 박지원 “文 당선이 DJ 유언”

선거운동 첫날 광주서도 유세대결

제18대 대선 선거운동 첫날인 27일 광주에서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첫 유세대결이 펼쳐졌다.

양 당은 이날 당 대표와 원내대표, 국회의원 등 주요 당직자들을 대거 투입하면서 선거운동 기선 잡기에 주력했다.

새누리당 광주시당은 이날 광주공원 광장에서 첫 유세를 열었다. 이날 유세는 국내 선거유세 사상 처음으로 광주·서울·부산·대전 4곳을 다원 생방송으로 연결해 진행됐으며, 황우여 대표, 이정현 공보단장, 한광옥 대통령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이자스민 의원 등이 참석해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황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박근혜

후보는 준비된 후보”라며 “대통령제를 준비하는 데 광주가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지난 4·11총선 때 성원에 힘입어 소신을 갖고 호남의 정서를 전달하고 있다”며 “지난 4년간 ‘호남 예산 지킴이’라는 별칭을 얻었는데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호남 인재 지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후보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약속을 지키는 새 정치의 미래를 확실히 열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황 대표 등 중앙당 주요 당직자는 또 이날 오후 충장로에서 거리유세를

진행하는 한편, 젊은이들과 거리 데이트, 게릴라 미팅 등의 이벤트를 가지며 젊은 층과의 소통에 주력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북구 말바우 시장에서 거리유세를 갖고 박 후보의 지지를 당부했다.

민주당 광주시 선대위도 이날 광주 금남로 옛 도청 앞 광장에서 박지원 원내대표와 장병완 시당위원장, 임내현·박해자 국회의원을 비롯한 당원 및 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박지원 원내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대통령이 되려면 사람을 앞세워야지 아버지를 앞세우면 안 된다. 광주 시민은 아버지를 앞세우는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이 고 김대중 대

령의 유언”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대학생·주부·대학교수·노동자·상인·장애인·전직 교장단 대표 등이 참석해 문 후보에 대한 지지 연설을 해 눈길을 끌었다.

지지연설에 나선 대학생 김세라(24)씨는 “많은 젊은이처럼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고, 안 후보로 단일화되지 않아 아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투표를 포기할 수 없다”며 투표 참여와 문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전남 9개 지역을 돌며 릴레이 지원유세를 펼쳤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8시 광주 동구 산수오거리 출근인사를 시작으로 오전 10시 말바우시장 앞에서 “중앙소통유세단 광주집중 유세” 등에 참석했으며, 오후에는 지역구인 목포

역 광장에서 지원유세를 펼쳤다.

한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 후보는 28일 광주를 방문해 금호타이어와 기아자동차 앞에서 노동자들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며, 중앙 유세단도 이날 광주·송정리 장과 조대 정문, 남광주 등지에서 유세를 벌일 계획이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전남대학교행정대학원**

2013학년도 모집분야

- 석사과정(야간): 광주반, 여수반
- 특별전형('12. 12. 5까지 접수)
- 일반전형('12. 12. 19까지 접수)

▪ 최고정책과정 ▪ 관리자과정

전화 062-530-5196 FAX 530-2266  
홈페이지 : http://cnugp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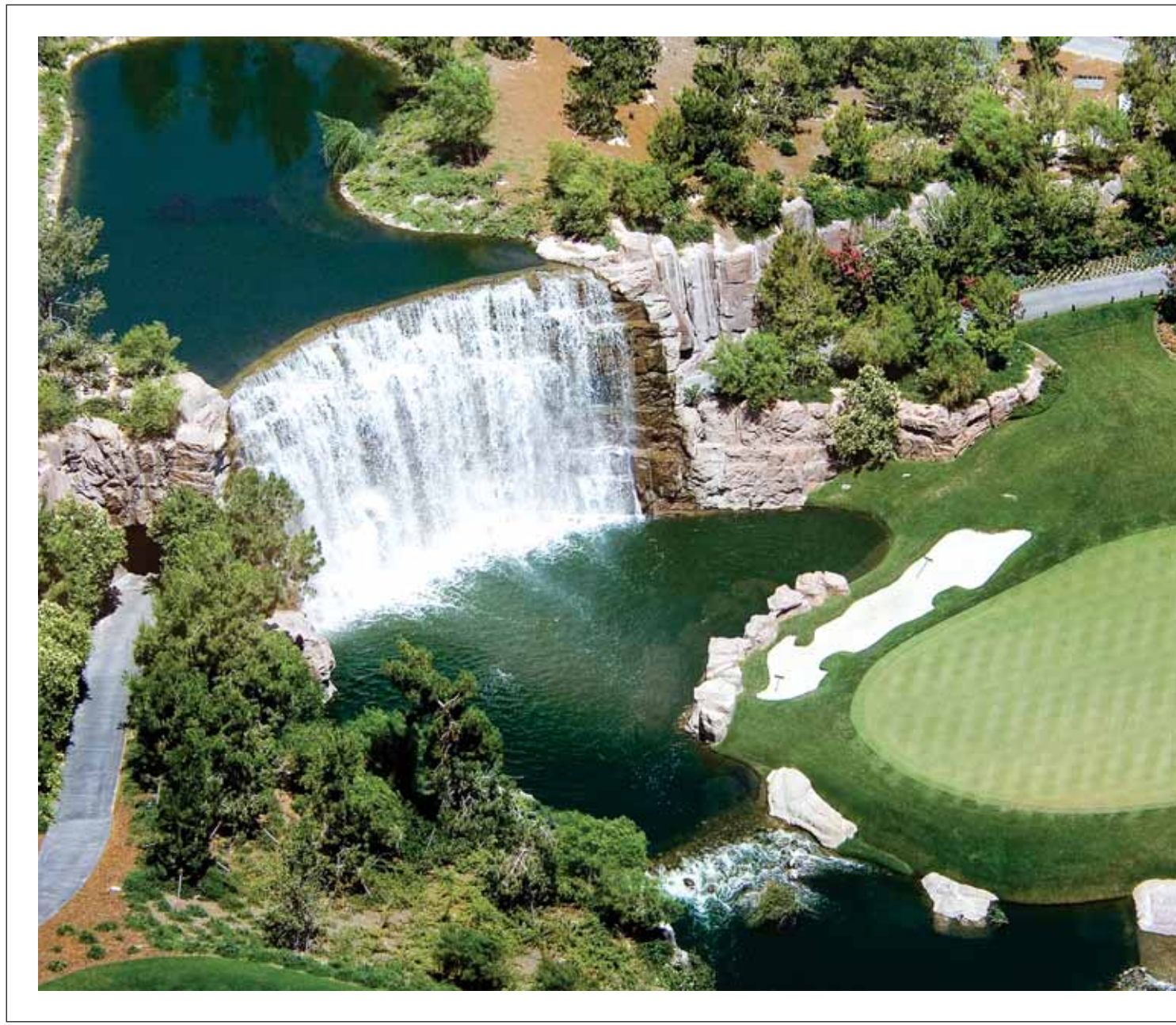
**빛의만평** - 김중두

저의 안철수 생각

시간이 없다

도와줘!

설마, 책 쓰고 있는 건 아니겠지?!



## 금호아시아나회원권 하나로 골프, 리조트, 스파, 요트를... 5년 만기 보증금 반환 골프멤버십 탄생

레저업계에 큰 “멀티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현대에는 골프뿐만 아니라 각종 콘도 등 혜택을 모은 실속형 상품이 대세인 것이다. 국내 굴지 재벌기업인 금호아시아나 그룹금호리조트가 골프 마니아를 위해 금호그룹 프리미엄 V골프리조트멤버십을 출시해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화제가 집중되고 있다. 이미 5년 전 회원의 신뢰와 믿음으로 골프멤버십 회원권을 전액 반환해주었고 재차 고객의 성원으로 2차로 골프 상품을 출시했다. 국내 골프멤버십 중에서 회원 수가 가장 많고 혜택이 뛰어나고 동시에 안전성, 수익성, 보장성을 갖춘 자타가 공인하는 명실상부한 국내 골프멤버십 1위 회사다. 10위 안에 드는 그룹 이미지답게 신뢰성과 안전성을 필두로 고객 만족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 최초로 골프장 정회원 대우를 실시했고, 18년간 회원들에게 신뢰와 믿음으로 약속을 지켰으며, 시중 유사 상품과 달리 고객 편의와 혜택 등 고객 만족 서비스로 차별화에 나섰다.

는 첫 회 무료 이용권 5매를 제공한다. 겨울철 스키 이용시 스키장 3곳 양산에네펠리, 현대선유리조트, 엘리시안강촌리조트를 회원자객으로 이용한다. 셋째, 국내 아시아나항공 이용 시 5년간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렌터카 이용 시 금호 렌터카를 최대 30%~50% 할인 받을 수 있다. 넷째, 휴식과 테마시설로 심신을 말끔히 풀어주는 스파 이용으로, 아산, 화순, 제주도 3곳의 직영 스파 시설 및 충무마리나 요트도 20~4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상 4가지 다양한 혜택으로 상상 그 이상의 고객 만족을 위해 상품이 출시되었다. 다시 말하면 국내 굴지 기업답게 신뢰, 안정, 믿음성으로 고객 요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골프멤버십 상품은 패밀러, 스위트가 있으며 입회기간은 5년이다. 5년 후 보증금은 반환하며, 연장을 원할 경우 동일조건으로 재연장도 해주며, 특히 리조트에 대한 지분을 제공하기 때문에 더욱 보증금 안전보장에 전혀 염려없다. 골프장 난립으로 회원권의 투자매력이 상실되는 상황에서 회원권 하나로 골프, 리조트, 스파, 요트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춘 금호 프리미엄 골프멤버십 회원권에 골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모집은 11월 30일까지 회사보유분 150구좌로 선착순 한정 최종 마감하여 푸짐한 혜택도 주어진다.

회원문의 02-501-1787 (24시간 상담시스템)